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슨 뜻인가요?

곁에

빅 콜먼

소개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2 장, 13 장, 15 장, 17 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절정입니다. 최근에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하느님께서 약속의 땅 계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수백 년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이 40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도착한 후 그들의 땅을 위해 싸워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젖과 꿀"을 즐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한 나의 기대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나의 기대는 보통 그분이 하시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점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그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기대에 대한 공부입니다. 목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과에 사용된 성구

시편 36:5

시편 100:5

시편 143:1

창세기 12:2 – 3, 6 – 7

창세기 15:1 – 21

창세기 17:1 - 8, 15 – 22

로마서 8:29

여호수아 24:1 - 4, 11 – 13

신실함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크리스천이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속성 중 하나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목입니다.

시편 36:5

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하늘에 있사오이다. 또 너의 충실함은 구름에까지 미치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표현한다)

시편 100:5

여호와는 선하시니라.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그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리라.
(진리라는 단어는 시편 36:5에서 신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같습니다. 'emuwnah')

시편 143: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특히 우리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신실하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들과 구약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emuwnah)'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굳건함, 충실함, 굳건함, 꾸준함

오늘날 우리가 "충실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하이파이 스테레오에서와 같이 "품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실도의 실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실함의 질 또는 상태
- 세부 사항의 정확성: 정확성

Webster's Online Dictionary 에 [따르면](#) 충실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신뢰 또는 의무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충실을 의미함"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항상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충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충실하심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읽어 봅시다. 창세기 12:2-3, 6-7, 15:1-21 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그리고 그의 후손들) 사이의 언약이 이 구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2100년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아브람(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종인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창 15:4)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 약속의 중요성을 알려 주시기 위해 흥미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15:5 절을 읽어 보세요.

맑은 밤에 캠핑을 가거나 시골 지역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별이 가득합니다. 하늘의 어떤 부분에는 별이 너무 많아서 "흐림"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아... 이 별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 나는 내가 본 것의 규모에 압도되었다.

도시 안에서 하늘을 보는 동안 시야는 당신을 둘러싼 도시의 불빛에 가려집니다. 기껏해야 가장 밝은 별 몇 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의 별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시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일상 생활의 관심사와 활동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일, 학교, 가족, 친구, 청구서,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문제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분의 매일의 지속적인 축복에 대한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요점: 우리는 일상의 문제들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러 번 못합니다.

우리가 "도시의 불빛에 눈이 멀게", 즉 일상 생활의 문제에 소비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감정이 격해질수록 하나님을 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걱정, 분노, 두려움은 흔한 일이다. 불확실성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핍이며, 다른 많은 감정의 문을 열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교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지적 능력에 근거한 교만은 또한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다.

관계의 결핍: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느슨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가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반응하는 경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부족: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하실 때 "그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앎의 결핍은 실제로 그분과 우리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두 함께 그분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 만약 당신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또는 그분의 길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밤에 선글라스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신실하심의 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 중 최근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흐리게" 한 것은 무엇인가? 왜?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을 보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는가? 당신은

당신의 일상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는 수백만의 별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주 큅니다. 그러던 중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15:6 을 읽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었습니까?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오직 그분만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편안함, 음식, 거처, 의복, 가족,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 과거의 기적,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의 형태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 이것들은 우리 삶의 "별"이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다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진 것이 적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축복이 있고, 그분의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의 말씀(성경), 설교자,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 장 6 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

많은 경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습니다.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히 움직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미래를 아시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이상이라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원합니다.

로마서 8:29 을 읽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conformed"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같은 형태를 가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summorphos"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의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본성의 일부 측면은 빠르게 변합니다. 다른 측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즉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의무, 신뢰, 또는 의무에 대해 엄격하고 지속적인 신실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기다리거나 우리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 아이들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어른들)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더 인내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또 다른 영역은 "우리 믿음의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의무, 신뢰, 또는 의무에

엄격하고 지속적인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요점: 하나님의 성품이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실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점: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목적,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11년 동안 지속된 심각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제 인생의 한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터널의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구원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구원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축복의 계절에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수 24:1-4, 11-13). 여호수아는 기원전 1400년경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21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 중에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 신뢰, 또는 의무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충실성을 포함합니다. 그분은 충실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약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련의 시기에 그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성품과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